

배은망덕한 사람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던 오래 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동네 어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 대인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사라고 할 수 있음

□ 시간에 따른 인사말과 인사법

- 일본에서 아침 인사로 쓰이는 ‘오하요’ (おはよう)는 ‘오하야쿠 카라 고쿠로사마데 고자이마스’ (お早くからご苦労様でございます, 이른 시간부터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아침부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로이자 배려의 말임
- 곤니치와(こんにちは)는 ‘교우와 고키겐 이카가데스카’ (今日はご機嫌いかがですか,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를 줄인 말로 낮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의 상태와 심경을 염려하는 말임
- 저녁 인사말인 ‘곤방와’ (こんばんは)는 ‘곤방와 요이방데스네’ (今晚は良い晩ですね)에서 나온 말로 알려져 있음
- 때에 따라 바뀌는 이러한 인사말이 일본에서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에도(江戸)시대 서적에서부터 이러한 표기가 등장함

□ 상황에 따른 인사말과 인사법

- 아는 사람 집을 방문하는 일본사람은 대부분 선물을 준비해 가는데 그 선물을 건네면서 하는 인사말이 참 독특함
 - ‘고레와 마코도니 쓰마라나이 모노데스가’ (これはまことにつまらないものですが)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마라나이’ 라는 말은 하찮다, 시시하다는 뜻임
 - 즉 “이거 정말 시시한 건데요” 라고 하며 말끝을 흐리는 것인데 사양과 겸양에 익숙한 동양적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서양적 사고방식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음
- 일본사람들이 ‘쓰마라나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사람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호의를 받으면 언젠가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언젠가 호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일을 반드시 화제로 삼으면서 ‘센지츠와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先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전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예의를 포함
 - 만약 이 예의표시를 잊는다면 ‘온시라즈’ (恩知らず, 배은망덕한 사람)라고 생각하는데 예의 바른 인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의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려고 함
- * 이런 습관이 있으면 일본 사람은 다른 사람 집에 선물을 가져가기 어려워지는데 즉,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당신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가져갈 때는 “이건 하찮고 시시한 것이므로 당신은 나에게 답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것임
- * 따라서 “이건 시시한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답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임

-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도 ‘난니모 고자이마센가 메시아갓데 구다사이’ (何にもございませんが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드십시오)라고 함
 - 만약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먹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드시더라도 안 드신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임
 - 따라서 선물을 건네 줄 때 “이것은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 같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센지츠와 시츠레이 이타시마시다(先日は失礼いたしました, 일전에 실례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음
 - 이런 말을 들으면 분명히 지난번에 이 사람을 만났지만, 그때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실례했다고 하는지 궁금해 질 수 있음
 -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음
 -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일전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쁜 짓을 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나도 모르는 부주의로 저 사람에게 폐를 끼쳤을지도 모르니 지금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임